

다섯 돌 맞아 더욱 실속 갖춘 '식품안전의 날'

2006 국제 우수 안전식품 전시회

제5회 식품안전의날 행사 '2006 국제 우수 안전식품 전시회'가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특히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로 삼아 국내의 우수 안전식품을 전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식품안전 강연을 펼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글 최재연 · 사진 전문식

해마다 5월 14일로 제정된 식품 안전의 날을 기념하는 '2006 국제우수안전식품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한국식품공업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식품 안전의 날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첨가물과 지나친 당분, 트랜스 지방 등이 포함된 어린이 관련 식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 식품 안전하고 맛있게'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지난 10일 열린 식품안전마당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 및 식품업계, 식품학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지를 담은 식품안전비전이 선포됐고, (사)대한제과협회 김옥중 부회장이 식품안전관리에 앞장서온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경사가 있었다.

제과·제빵업체 참여 저조 아쉬워

국내의 우수 식품업체 130여 개사가 참여한 식품홍보 마당에는 다양한 식품소재, 기능성식품·친환경·유기농 우수식품, 식품포장 제품들을 선보였다. 제과·제빵 관련 업체의 경우 양산제빵업체 (주)샤니와 캘리포니아 호두로 유명한 (주)다림너츠빌 등 단 2개 회사만이 참여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샤니는 바로그대로토스트, 옛날단팥빵, 납품용 햄버거 빵, 핫도그번스 등 자사의 대표인기제품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열어 참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캘리포니아산 크레인 월넛(CRAIN WALNUT)의 한국 판매를 맡고 있는 (주)다림너츠빌에서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규격의 호두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말린 서양 자두 '푸룬' '푸룬 주스'를 홍보하는데 나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식약청은 요즘 어린이들에게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질환이 증가하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중독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번 식품안전의 날을 계기로 올해를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로 삼아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Hot Issue

얼마 전 큰 파장을 일으켜 식품안전의 화두로 떠오른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의 상관관계와, 트랜스지방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시회 현장에서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전 강연'이 열려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식품첨가물, 트랜스지방이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무조건 나쁘지만 한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상 섭취했을 때만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강연 참가자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 소비자뿐 아니라 식품 관계자 및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보관을 설치해 두고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알렸다. 2, 3 이날 기념식에서 식품안전에 기여가 큰 각계 인사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옥중 부회장은 식품안전관리에 앞장서온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4, 5 제과·제빵 관련업체 가운데서는 (주)샤니와, (주)다림너츠빌이 참가해 제품 홍보에 나섰다.

